K-spirit 선도 명상 전문가 양성 학당 문 연다

한국명상지도자협, '명상아카데미 대강좌' 개강

3월 22일부터 기초반·심화반 10강
실시간 화상강의…명상 전문가 지도
수료 시 전문지도사 자격증 취득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참선과 마음챙김, 위빠사나, 화두선 등 명상 수행법을 배워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강좌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혜거)는 '제13기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를 개강한다. '지혜와 평화의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총 10강으로 구성됐으며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3월 22일~5월 31일 진행되는 기초반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30분, 3월 25일~6월 3일 열리는 심화반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30분 진행된다. 두개 반 모두 실시간 화상강의(Zoom)을 통해 참여가능하다.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를 수강하면 다양한 수행법을 전문가들에게 지도받을 수 있다. 기초반은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혜거 스님의 '초심자를 위한 참선 입문'을 시작으로 인경 스님의 '고집멸도 명상상담', 월호 스님의 '아바타명상', 명법 스님의 '능엄경의 반문자성', 무애 스님의 '참선의 원리와 활용', 선업 스님의 'MTV통합명상과 표현명상', 현암 스님의 '순수 위빠사나', 지운 스님의 '자비다선 차명상',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적경 스님의 '가피명상' 등으로 구성된다.

심화반은 혜거 스님의 '선종의 유래와 간화선 참구', 지운 스님의 '자비선명상', 김재성 교수의 '자아통찰명상', 김병전 교수의 '하트스마일명상의 이론과 실제', 장효산 원장의 '내려놓음명상', 안희영 교수의 'MBSR 프로그램의 이해', 박희승 교수의 '화두참선의 원리와 효능', 김열권 원장의 '마하 사마타 위빠사나명상법' 등이 진행된다.

강좌를 이수한 수강생들은 명상전문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강좌 수료 후 금강선원 등 명상지도자협회 소속 19개 단체에서 100시간 이상 실습을 완료하면 2급 자격증 심사조건을 갖추게 된다.

1급은 단체 교육과정 200시간 이수와 심화반 강좌를 수료해야 하며, 전문 자격은 1급 자격을 갖춘 후 단체 교육 100시간 이상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상임이사 적경 스님은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직무스트레스, 이혼율 증가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된 현대인에게 용기와 희망, 치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면서 "명상을 통해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찾고 고통의 원인과 본질에 대해 성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교육을 통해 명상전문지도자를 양성, 우리사회에 지혜와 평화의 명상을 널리 전하고자 한다"면서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명상의 세계화를 위한 K-spirit을 체계적으로 정리, 발전시키고 시대가 요구하는 명상지도 전문 인력 양성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명상대중화를 통한 지혜와 평화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교육 인증 과정이다. 이수 시 연수점수 30점이 인정된다.

접수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홈페이지(www.kamto.net)에서 가능하다.

(02)953-5307

"승가결사체는 종단 발전 동력입니다"

조계종 교육원, 승가결사체
3월 2~8일 인증단체 간담회

24개 단체 4차례 걸쳐 진행
단체 활동, 정보 교류 나눠
출가 진흥 위한 의견 교환도
향후 '출가 장려' 분야 추가



조계종 교육원은 3월 2일부터 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2023년도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인증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8일 열린 4회차 간담회의 인증서 수여 후 기념촬영 모습.

조계종 승가결사체 인증과 상호 소통을 위한 간담회가 처음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지우)은 3월 2일부터 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2023년도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인증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승가결사체 인증은 인증서를 전달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교육원과 결사체 간 원활한 소통과 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올해에는 총 28개 단체가 승가결사체로 인증을 받았으며 네 차례 간담회를 통해 24개 단체에 인증서가 전달됐다. 4개 단체는 개별일정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3월 8일 열린 4차 간담회에서 교육원장 직무대행 지우 스님은 승가결사체가 종단 전법포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많은 활동을 당부했다. 지우 스님은 "승가결사체는 각 분야와 지역에서 뜻 있는 스님들이 활동하는 모임으로 한국불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간담회를 하며 여러 스님들을 만나보니 활동 내용도 좋고, 유능한 인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포교, 사회실천 역량들은 결집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승가결사체가 맡아줘야 한다"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 선행 사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단체 간 활동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EM지구사랑실천 대표 혜솔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혜눌 스님은 "쌀뜨물 1리터를 정화하는데 깨끗한 물 440리터가 필요하다. 아무리 정화해도 한계가 있고, 결국 모든 오염물질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면서 "우리 결사체는 안전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한 EM스마트 발효기를 제작·보급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포교와 출가 진흥을 위한 다양한 논의도 이어졌다. 3월 7일 간담회에서는 천진불어린이합창단 대표 도진 스님과 자비나눔 대표 해동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포교를 위해 계층별 전국 연합 템플스테이를 종단 차원에 열 것을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활동 보고,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승가결사체 활동 분야로 '출가장려'가 추가될 예정이다. 출가장려 활동 프로그램 진행 단체에 대해선 차년도 재인증, 보조금 우대 지원이 이뤄지며 활동프로그램에 따라 단체와 사전에 협의해 홍보, 기타 지원도 진행된다.

승가결사체에 대한 심사기준도 강화된다. 운영규정 보조금 지원 평가표를 근거로 평가기준이 되는 점수제를 도입하며, 인증취소 기준 인원을 '실제 활동 기준을 충족한 4인 미만'으로 변경·강화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찬송가 시무식' 숲 공수처장 사퇴하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 사퇴까지 릴레이 시위

3월 8일 우봉·탄웅 스님 시작
매주 월·수·금 1인 시위 진행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편향 논란이 불거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우봉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탄웅 스님은 3월 8일 오후 2시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김 공수처장은 올해 1월 2일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편향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평화위원회 등은 잇달아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사퇴를 촉구했으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에 김 공수처장의 종교편향 행위를 신고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공직자 종교차별예방위원회 결정으로 김 공수처장의 종교차별 행위는 인정했으나 재발 방지 마련 및 종교차별예방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날 우봉 스님은 "누구보다 정치적 종교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수처장이 공식 행사인 시무식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를 내세우며 찬송가를 불렀다는 것은 공직자이자 사정기관장으로서 명백한 종교편향이며 범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차별예방교육 실시 권고와 재발 방지 마련 등의 지극히 형식적인 조치만을 시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직자 윤리법과 공수처법 등에 여러 징계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 등을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제2, 3의 공수처장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날 시위를 시작으로 매주 월·수·금 오후 2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키로 했다. 시위는 김 공수처장이 사퇴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우봉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탄웅 스님은 3월 8일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튀르키예·마애불 입불 불사 기금 잇달아 답지

수덕사, 비구니회 등 동행에 전달



수덕사 주지로 임명된 도신 스님이 기금 33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튀르키예 강진을 위한 구호기금과 열암곡 마애불 바로모시기 불사 기금이 잇달아 답지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도신 스님은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및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 기금 3300만원을 전달했다.

도신 스님은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고 대중과 화합하며 교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종단 발전과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은 3월 9일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동행에 튀르키예 지진피해 구호금과 자비나눔 기금으로 2600만 원을 기탁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이번 기금 마련을 위해 본사뿐만 아니라 화엄사에 소속된 말사들도 함께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어려울 때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곧 불교 정신"이라며 "형제의 나라인 튀르키예를 돕는데 동참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3월 8일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튀르키예 구호 기금으로 1000만 원,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기금으로 1000만 원이 기탁된다. 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은 예방 자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 초청장을 전달했다.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동언)도 3월 8일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총동문회 회장 동언 스님은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2100여 명의 동문스님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했다"면서 "튀르키예 구호 기금과 경주 남산의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오윤겸 수습기자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